



전 우 섭 | 다비타 공동체 대표, 동두천 민주시민회 의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Ph.M),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M.Div)



서울의 대표적인 매매춘 지역인 전오동 텍사스와 미아리 텍사스촌은 매춘인들의 의사가 엇갈리는 곳이다. 정책의 갈등이 빚은 명암을 조명한다.

단속을 강화해 매춘을 완전히 없앨 것인가(전오동 텍사스촌), 아니면 현실적으로 매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관리할 것인가(미아리 텍사스촌)하는 매춘 정책의 두 얼굴은 사실 어우러진 대안도 문제의 본질도 되지 못한다.



‘백만이 넘는 여인들이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낮과 밤이 없는 대지를 누비는 현상... 정책까지는 못 만들어도 그네들 역시 인간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같이 호흡하고 살 자격이 있음을 승인해야 한다.’(박종성 ‘한국의 매춘’ 중에서)

우리 나라는 율락행위방지법에 의해 매춘이 완전 금지된 국가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춘이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정부도 사실상 ‘종합대책’이란 것을 포기한 지 오래다.

같은 두 가지다. 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매춘을 완전

히 없앨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매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잘 관리할 것인가. 서울의 대표적 홍등가 가운데 전차의 길을 가고 있는 ‘천호동 텍사스’와 후자의 길을 택한 ‘미아리 텍사스’에서 비치는 ‘매춘정책의 두 얼굴’을 비교,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 천호동

28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3 속칭 ‘천호동 텍사스’의 한 율락업소에서 불이 나 손님 한 명이 질식사 숨졌다. 그는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던 경찰이 두려워 업소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천호동 율락가에 대한 경찰의 ‘1차 정벌’은 96년 시작됐다. 거의 매일 단속을 벌인 끝에 당초 170여개 업소가 60여개로 줄었다. 올 들어 새로 부임한 주상용(朱相龍) 강동경찰서장은 ‘2차 정벌’을 시작했다. 주서장은 “매춘을 뿌리뽑는 것 외에 다른 타협은 절대 없다”며 부임 이후 매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 율락여성들의 복지 수준은 미아리 텍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월급통장같은 선진국 홍등가를 모방한 제도는 물론 없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다.

업주의 반발도 심하다. 업주 김모씨(46)는 “미아리 등 다른 곳은 영업을 묵인받고 있는데 유독 천호동만 단속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식의 단속은 매춘사업을 나쁜 구로 떠넘기는 효과밖에 낳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아리

지난해 1월 여성인 김강자(金康子)총경이 관할 중앙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는 큰 변화를 겪었다. 미성년자 매춘과 노예 매춘이 거의 사라졌고 윤락여성들은 월급통장을 갖게 됐다.

윤락여성들의 호응도 크다. 김보씨(25·여)는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요즘에는 돈을 모아 자립해 나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미성년자 매춘만 단속하고 성인 매춘은 사실상 묵인하는 경찰의 태도는 공개적으로 밖을 이긴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매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업주들이 서장과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영업 방침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적도 있다. '텍사스 관리'는 그것이 낳은 몇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동아일보 1월 31일 기사에서 발췌)

>> 매매춘 지역 두 단속방안에 대한 고언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매매춘 지역을 폐쇄시킨 사람은 대만 타이베이시의 '진수핀 시장'이었다. 그는 1994년 12월 취임식을 하자마자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시작하였고 경찰국장 임명권을 무기로 만약 시장의 지시에 불이행하면 무조건 경찰국장 및 경찰들을 경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매매춘 지역에 대한 단전, 단수, 비리사술차단 등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우리 나라에서 퇴폐업소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대구 이재용 남구청장이었다. 그는 95년 7월말부터 관할구역인 대명동 속칭 영계골목에서 여러 협박과 폭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춘 지역 단속을 계속해서 벌인 결과 많은 효과를 보게 되었다.

2000년 1월 서울 중앙 경찰서 김강자 서장으로 인해 미아리 텍사스촌의 정화작업은 너무나도 유명한 전설이 되고 있다.

매매춘의 이동

타이베이시의 집단적 매춘은 없어졌지만 그 위성도시의 매춘은 늘어났으며 다른 형태의 매매춘(이발소, 사우나 등)면대 매춘업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News+, 9월 11일자 기사).

우리 나라는 어떨까? 매매춘 강력 단속으로 인해 3방향으로 매춘이 퍼져 나갔다.

- ① 다른 위성도시로 매춘이 옮겨갔다.
- ② 일명 밥집이라고 해서 주택가로 옮겨갔다.
- ③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매춘으로 옮겨갔다.

단속을 강화해 매춘을 완전히 없앨 것인가(천호봉 텍사스촌), 아니면 현실적으로 매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관리할 것인가(미아리 텍사스촌)하는 매춘 정책의 두 얼굴은 사실 아무런 내안도 문제의 본질도 되지 못한다.

단속을 강화하든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든 똑같이 매매춘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악한 내면이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가?

매매춘 퇴치 프로그램

- ① 인간의 사고 즉 정신을 바꾸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매매춘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치유 프로그램 (인간관계훈련, 영성훈련, 지속적 상담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는 사창가 폐쇄는 매춘을 3배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 ② 매매춘 종사자들을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적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 교육, 복지, 심리, 컴퓨터 등).
- ③ 이들에게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열어 주면서 그런 후에 매춘을 단속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은 현장을 잘 관리하면서 충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쥘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매매춘을 예방, 치유, 재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언하고 싶다.